**데이비드 터너 박사, 마태
복음 강의 10B – 마태복음 24:1-31: 종말론적 담론 I: 서론과 예언**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터너입니다. 마태복음 10b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는 주님의 감람산 설교, 즉 종말론적 설교인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대한 두 강의 중 첫 번째입니다. 먼저 설교 전체를 소개하고, 이번 강의에서는 마태복음 24장의 처음 31절을 다루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시작하여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나머지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이 구절에는 너무나 많은 중요한 문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표면만 건드리고 그 문제들을 여러분이 직접 연구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문제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올리벳 담화에 대한 소개입니다. 먼저 이 담화를 연구할 때 발견되는 다양한 해석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 담론을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질문은 칠십인 통용기(Common Era)에 성전이 파괴된 사건과 그리스도의 재림 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의 관계입니다. 칠십인과 예수님의 종말론적 재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세 가지 견해가 있지만, 각 견해 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주의(Preterist) 관점에 따르면, 이 담론의 예언의 대부분 또는 전부는 로마인들이 성전을 파괴했던 서기 70년에 성취되었습니다.

보충 자료 40페이지에 있는 강의 개요와 함께 41페이지에 도표가 있는데, 이 도표는 여러분이 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도표와 비교해 보시고, 41페이지에 있는 도표를 조금 더 연구하시면 강의를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파주의적 관점은 모든 것이 기원후 70년, 로마인들이 성전을 파괴했을 때 성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파주의자들은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전파주의 관점에서 볼 때, 24장 1-35절은 기원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묘사하고, 24장 36절 이하만 예수님의 종말론적 재림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완전 전파주의자들은 이 말씀 전체가 기원후 70년에 성취되었다고 설명하려고 시도합니다.

제 생각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반대의 관점인 미래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이 담론은 오직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월부르드와 투생을 비롯한 많은 세대주의 학자들, 심지어 그들의 주석서에서, 그리고 심지어 바비에리의 『성경 지식 주석』에서도 그러한 관점을 취합니다.

이 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24장 3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질문,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겠느냐?"의 첫 부분에 실제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성전이 언제 파괴될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미래주의적 관점은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무시하고 오직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만 생각하신다고 주장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위의 두 관점, 즉 엄격한 과거주의적 관점과 엄격한 미래주의적 관점 모두 일방적이며, 따라서 이 구절의 복잡성을 다루기에 부적합하다고 결론짓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는 접근법만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과거-미래주의적 관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과거-미래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그리고 이 관점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예수의 담화에 대한 예언은 기원 70년 예루살렘의 역사적 멸망과 아직 장래에 있을 예수의 재림을 모두 엮어냅니다.

이 관점을 옹호하는 일부 사람들은 70년과 관련된 담화 부분과 종말과 관련된 부분을 구분하고, 다른 이들은 70년의 사건을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될 사건의 부분적 또는 예견적 성취로 봅니다. 블롬버그, 카슨, 해그너, 그리고 그들의 마태복음 주석을 참고하면 이 관점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는 예언적 관점, 즉 단축법, 또는 가까운 성취와 먼 성취의 이중적 개념이 포함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강의에서 따르는 접근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종말론적 담론은 제자들의 질문의 두 가지 측면 모두에 답합니다.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독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세상의 궁극적인 종말을 예견하는 예비적인 그림을 제공합니다. 물론 그 종말은 아직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제 이러한 일반적인 언급들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 담화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볼 때 이러한 다양한 관점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감람산 담화의 문맥적 개요를 살펴보면, 24장 1절에서 예수님은 21장 17절에 시작된 여러 유대 지도자들과의 오랜 갈등 끝에 성전을 떠나십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성전에서 이 지도자들과의 수많은 대립을 통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23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전의 웅장함에 몰두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것과 대조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자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성전 경내 건축 양식에 주의를 기울이셨지만, 예수님은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전의 파괴 시기와 (그들이 추측했듯이) 24장 1-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질문하면서 설교의 핵심으로 이어집니다.

제자들이 성전 파괴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질문했을 때, 그들은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여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의 미래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올리브 산 설교는 교훈적인 성격의 첫 부분인 24장 4-31절로 구성됩니다 . 이 24장 4-14절은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전체 기간을 특징짓는 예비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첫 번째 해산의 고통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물론 과거주의자들은 이 일이 서기 70년 이전에 일어났다고 생각할 것이고, 미래주의자들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들이 교회가 역사 전반에 걸쳐 겪어 온 고난의 유형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부분인 24장 15-28절은 성전의 더럽혀짐(24장 15절)과 전례 없는 큰 환난(24장 21절)을 묘사하며 더욱 강렬하고 불길한 어조를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서기 70년에 일어날 성전의 멸망을 예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이며, 이는 현세의 종말을 알리는 최후의 심판의 징조가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환난 후에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것은 24:29-31에서 표준적인 구약의 묵시적 이미지로 묘사됩니다. 24:32에서 어조는 더욱 간절해지거나, 말하자면 실제적인 권고가 되는데, 강조점이 무엇에서 그래서 무엇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24:32부터 비유적인 이미지로 말씀하시며, 그분의 오심의 긴박함과 알려지지 않은 시간을 강조하십니다(24:32-36). 이는 노아에 대한 언급(24:37-44)과 현명한 종의 비유(24:45-51)와 현명한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25:1-13)에서 경계심을 강조하게 됩니다. 달란트의 비유(25:14-30)는 하나님의 선물을 충실하게 사용하는 것을 강조하고, 25:31-46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림은 예수께서 여전히 어린아이들을 염려하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올리벳 강론은 성경의 예언이 단순한 예측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에 대한 지식(24:1-31)은 현재 하나님의 백성(24:32-25:46)에게 깊은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예언적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날짜를 정하는 데 집착하지 않고, 깨어 있음, 신실함, 열매 맺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작은 형제들을 향한 섬김으로 특징지어질 것입니다. 데이비스와 앨리슨이 지적했듯이, 이 질문은 날짜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감람산 설교와 다른 공관복음서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의 관계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보충 자료 42페이지 상단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관복음 문제를 어떻게 풀든, 마태복음의 이 설교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설교보다 훨씬 길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배경과 진통의 시작에 대한 세 가지 설명은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42페이지 상단의 도표를 보면, 세 복음서 모두에서 첫 번째 배경과 두 번째 진통의 시작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멸망의 가증한 것에 대한 내용은 마가복음보다 약간 더 길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루살렘 주변의 군대에 대한 내용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보다 훨씬 짧습니다. 42페이지 도표에서 세 번째 항목인 멸망의 가증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42페이지 도표에서 네 번째인 인자의 오심에 대한 마태복음의 설명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 약간 더 깁니다. 42페이지 도표에서 다섯 번째인 무화과나무 교훈에 대한 세 가지 버전은 매우 유사하지만, 마태복음에는 노아 시대의 상황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즉 경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세 공관복음서에서 다루는 내용이 매우 다르지만 길이는 비슷합니다.

물론 가장 큰 차이점은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숫자, 종의 비유, 열 가지 버전, 달란트, 그리고 민족들의 심판에 대한 그림 같은 버전, 다시 말해 2445부터 2546까지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마태복음의 버전은 매우 독특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제목인 첫 번째 출산의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현세에서의 삶으로 해석됩니다.

예수님께서 24장 2절에서 성전의 임박한 멸망에 대해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24장 3절에서 그 멸망이 언제 일어날지 묻습니다. 그들은 성전 멸망을 세상 끝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 짓고, 이러한 일들이 곧 일어날 것을 알려줄 표징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질문은 주로 시기와 관련이 있는데, 언제, 그리고 예비적인 표징을 분별함으로써 언제 일어날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4장 4절부터 14절까지 그들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거짓 메시아와 선지자, 전쟁, 기근, 지진, 박해, 배교, 배신, 불법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모든 것들은 다소 일반적인 내용이며, 교회사에서 너무나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성전이 언제 파괴될지 정확하게 계산하려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자신이 언급한 혼란이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징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24장 6절에서 그는 이 모든 일들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24장 8절에서 그는 이 모든 일들이 단지 해산의 첫 번째 고통일 뿐이라고 말하며, 이는 세상의 종말 이전에 오랜 기간의 고통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24장 14절에 따르면,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온 세상에 왕국의 복음이 전파될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마지막 때의 연대기가 아니라, 충실한 제자도와 왕국 사역을 지속해야 할 자신의 윤리적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 장 13절에 따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자들은 잘못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옳은 답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과 3절에서 교회의 현재 고난이 세상 종말의 도래와 동일시될 것이라는 성급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은 서기 70년 이전 초기 교회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교회가 직면하게 될 어려움을 요약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해석가들은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과 요한계시록 6장 1절 이하 사이의 유사점을 자주 지적하는데, 요한계시록 6장 1절 이하에서는 봉인이 풀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봉인된 일곱 권의 책 중 처음 네 권은 당연히 묵시록의 유명한 네 명의 말 탄 자들인 것입니다.

만약 이 견해가 맞다면, 이 네 명의 말 탄 자들은 세상 끝의 마지막 환난 날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서 현재 겪는 사건을 상징하는 사건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는 여섯째 인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미래를 예언하는 사건들에 대해 실제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는 제 생각일 뿐입니다.

물론, 이 강좌는 마태복음에 대한 강좌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대한 해설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 15-28절에 나오는 성소 더럽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28절은 예루살렘 성전 더럽힘과 관련하여 일어날 극심하고 전례 없는 박해와 거짓 예언에 대한 경고입니다(마태복음 24장 15절).

이 경고는 24장 16-20절에 나오는 도피하라는 지시, 24장 21절과 22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을 단축하실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24장 23-28절에 나오는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새로운 경고를 포함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이 경고는 주로 70년 성전의 멸망과 관련이 있지만, 특히 24장 21절과 22절을 살펴보면, 이 경고가 궁극적으로 최후의 적그리스도에 맞설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은 역사를 통틀어 거짓 선지자와 거짓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가 끊임없이 유효함을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이 겪는 고난은 필연적으로 메시아의 출현을 갈망하게 만들지만, 그 갈망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논할 지면이 할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가장 심오한 질문은 다양한 과거주의와 미래주의적 관점에 따른 예언의 연대기적 참조가 아닙니다. 여기서 진정한 질문은 실존적 질문이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혜의 필요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과, 그들의 고난이 영적인 파멸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조화시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난은 그분의 재림 사이의 모든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0장 16절 이하, 요한복음 16장 33절, 사도행전 14장 2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과 같은 구절들을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이 고난은 시대가 끝날수록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 박해자들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혜롭게 그 고난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과 28절, 로마서 8장 28-3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고난이 필요한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보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난을 견디고, 결국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왕권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1절, 10장 24-33절,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베드로후서 2장 9절, 요한계시록 2장 26-28절, 3장 21-22절, 17장 17절. 이제 성소를 더럽히는 일, 곧 멸망의 가증한 일에 대한 신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4장 15절에서 성전을 모독적으로 더럽혔다는 언급은 히브리 성경의 느부갓네살부터 궁극적인 종말론적 적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예언과 성취의 복잡한 모형을 제시합니다. 여러 역사적 사건들이 이 예언의 성취를 일종의 연속선으로 구성하는데, 그중 하나가 기원전 605년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정복인데, 이는 다니엘 1장 1, 2절, 다니엘 5장 1-4절, 그리고 5장 22-23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셀레우코스 왕조의 통치자 안티오쿠스 4세(일반적으로 에피파네스로 알려짐)가 성전을 향해 저지른 극악무도한 모독으로, 이는 신구약 중간기인 기원전 167년에 하스몬 왕조의 반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성전을 황폐하게 한 가증스러운 일과 관련된 세 번째 역사적 사건은 기원전 63년에 로마가 하스모네안 왕국을 정복한 사건입니다. 당시 하스모네안 왕조는 사실상 종말을 고하고 로마가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속선상에 들어맞는 또 다른 사건은 다소 불균형적인 황제 칼리굴라가 자신의 머리 흉상을 신전에 세우려 했던 계획입니다. 그는 이를 계획했지만, 죽기 전에는 실행하지 못했는데, 이는 서기 40년에서 41년경에 발생했습니다. 성전에서 또 다른 신성모독 행위는 유대인들 스스로 자행했는데, 서기 70년 로마인들이 도시를 파괴하기 전, 열심당원들이 성전 구역을 오용했던 방식에서 그 예입니다.

이로 인해 성전은 전쟁터가 되었고, 이방인들의 박해만큼이나 성전의 거룩함을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대한 여섯 번째 모독은 실제로 기원후 70년에 로마에 의한 성전 파괴였고, 서기 135년에는 바르 코크바 반란으로 인해 로마인들에 의해 성전이 더욱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성경 예언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옳다면, 미래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상대로 궁극적인 모독 행위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맞다면, 적들이 성전을 더럽힌 사건은 총 여덟 건,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성취에 대한 복잡한 유형론의 일부입니다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다니엘서 24장 15절에 언급된 더럽힘이 과거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미래의 적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성취되는 편협한 예언이라고 가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여러 역사적 황폐는 모두 종말에 궁극적인 황폐로 이어지는 선험적 성취를 제공한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실현 불가능한 미래의 성전 재건을 포함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재건은 고대 유대교와 기독교 자료에서 실제로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강의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마지막 부분은 마태복음 24장 29-31절에 나오는 인자의 오심입니다.

먼저, 구약성경에 대한 암시입니다. 참고로, 추가 자료 42페이지 하단에 있는 도표는 마태복음 24장 29-31절에 나오는 구약성경 암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4장 29-31절에는 구약성경에서 가져온 이미지들이 가득합니다.

아래 표는 중요한 인용과 암시 몇 가지를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이 여기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지만, 다니엘 7장이 핵심 본문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위엄 있는 재판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으로 묘사됩니다(다니엘 7장 9절). 그분은 인자를 위해 판결을 내리시고, 인자와 그의 백성에게 온전한 통치권을 주십니다(다니엘 7장 14절, 22절, 27절).

이 모든 것은 역전의 맥락 속에 있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원수, 다니엘 7장 8절과 20, 24, 25절에서 언급된 작은 뿔이 심판받고 패배합니다. 다니엘 7장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인자의 오심은 하나님 성도들의 박해와 고난을 끝내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통치를 시작합니다. 42페이지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다양한 우주적 징조들이 나타나는 이미지와 관련하여 구약의 다른 많은 본문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의 오심은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 지상 지파들의 애통, 스가랴 12장, 나팔 불기, 이사야 27장, 택함받은 자들의 모임 등으로 바로 거슬러 올라가는 듯합니다.

이 모든 개념은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깊이 다룰 시간은 없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절정의 하늘 징조들과 그 영광스러운 재림 자체, 그리고 그 재림의 목적,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모아 상급을 받게 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두 재림 사이의 기간 동안 특징지어졌던 일상적인 일들을 뒤집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재림 사이의 이 기간 동안 제자들은 수많은 박해를 애통해했습니다.

9:15과 비교해 보십시오 . 그러나 이제 애통해하는 자는 박해자들이 될 것입니다(13:41, 42). 제자들은 스승의 기쁜 상급을 경험합니다(25:21, 23).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반전 모티프가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절의 신학적 요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은 마태복음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구절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몇 가지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10장 23절, 16장 27절, 28장 23절, 39절, 24장의 여러 구절, 예를 들어 3절, 27절, 37절, 39절, 42절, 44절, 46절, 48절, 50절, 그리고 25장의 여러 구절, 즉 6절, 13절, 19절, 31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26장 64절도 함께 언급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은 마태복음의 미래에 대한 관점에 깊이 스며든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 개념이 언급된 모든 구절들 중에서도 종말론적 맥락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은 바로 이곳일 것입니다.

이 재림의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이 먼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을 경각심을 가지고 기대하며 그날까지 충실히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24절과 29절에 그 당시의 환난 이후의 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환난 전 휴거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재림은 평소와 같은 상황을 역전시켜, 제자들을 슬퍼하게 했던 모든 민족에게는 애통이, 이전에 슬퍼하던 모든 제자들에게는 기쁨이 임하게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10절에서도 이와 같은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더욱 온전히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그리고 25장 34절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듯이 말입니다.

모든 민족이 심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5장, 4절부터 9절, 13장, 40절부터 43절, 16장, 27절과 28장, 19장, 27절부터 30절, 그리고 25장, 46절에 나오는 모든 약속들이 바로 이곳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을 미래주의적으로 이해한다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이지만, 과거주의적 관점에서 24장 29절부터 31절을 이해한다면 매우 다른 상황이 제시됩니다.

전파주의자들은 이 구절들이 성전 파괴의 신학적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해석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프랑스와 태스커의 마태복음 주석을 참고하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부활 후 승천하기 위해 하늘에 오르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승영의 의미는 기원 70년 로마인들에 의한 성전 파괴를 통해 드러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서 드러납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 언급된 환난이나 고통은 로마의 공격 이전 예루살렘의 열심당원들이 겪었던 끔찍한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하늘의 혼란은 그 기간 동안 관찰된 현상들을 통해 성취된 것으로 상징적으로 해석됩니다.

요세푸스는 로마의 예루살렘 포위 공격 당시 하늘에 나타난 이상한 징조들을 언급합니다. 택함받은 자들을 모으기 위해 천사들을 파견하는 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교회의 사명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는 24장 14절과 28장 19절에 언급된 내용 그 이상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전파주의자들은 24장 34절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동시대 사람들이 살아 있는 동안 성취될 것이라는 약속으로 이해하는 데서 동기를 얻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전에 문자 그대로 재림하지 않으셨기에,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며, 본문 전체를 기원전 70년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으로 간주합니다. 물론 성전 파괴는 예수 당시 사람들이 살아 있는 동안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전파주의의 또 다른 어려움은 하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는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계획을 축소하는 데 있습니다.

전파론자들은 그 계획이 이미 성취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전부인가?"라고 묻고 싶어집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세상의 종말을 언급하는 세계어, 7절에서 여러 곳에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세계어, 14절에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21절과 22절에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전례 없는 환난에 대한 것, 27절에서 하늘의 번개처럼 분명하게 인자의 오심이 언급되는 것 등 마태복음 24장의 세계어는 아직 미래에 일어날 일로만 만족스럽게 설명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